

뉴먼(John Henry Newman)의 기독교적 자유교육론 비판

우성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 초록 >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이념 아래, 인간의 자유를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왔다. 특히 현대의 자유교육론을 정치한 피터스(R.S.Peter)와 허스트(P.H.Hirst)는 그들의 전기교육이론에서 ‘지식의 형식으로서의 입문’을 통해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교육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후 허스트는 전기 자유교육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실제로서의 입문’으로서의 교육을 제안했고, 화이트(J.White)는 더 나아가 ‘잘살(Well-being)’을 위한 교육을 제시했다. 그러나 허스트의 후기교육이론과 화이트의 잘살에 대한 논의는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와 본성적인 종교적 특성을 배제함으로써 자유교육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 편으로는 자유교육이념을,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이념을 추구한 뉴먼(John Henry Newman)의 교육사상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종교적 본성과 전인성을 탐색하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총체적 지식’과 ‘신학’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유기적-통합적 지식의 필요성을 드러내어 전인적 인간을 위한 자유교육의 본질을 조명한다. 이로써 인간의 존재론적 논의와 종교적 특성을 배제한 자유교육론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비인간화, 수단화 되어버린 교육 현실에서 교육의 목적과 본질을 재조명한다.

주제어: 자유교육, 존재론, 인식론, 종교적 본성, 전인적 인간

I. 서론

고대 희랍시대로부터 인간의 자유를 위한 교육적 노력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현대자유교육론과 그에 대한 대안적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뉴먼(J.H.Newman, 1801- 1890)의 자유교육의 정당성을 존재론적·인식론적 측면에서

논의한다.

피터스와 허스트는 전통적인 회랍의 자유교육을 계승하면서도, 형이상학적 실재(reality)를 배제하고 지식과 마음의 논리적 관계로써 자유교육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인간이 '지식의 형식에 입문'함으로써 마음을 계발하여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유교육의 목적을 '지식과 합리성의 추구'에 두었다. 이러한 주장은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주지주의교육을 이끌었고, 학생 개인의 성향과 특성 등을 배제한 채 무기력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을 생산해냈다. 뿐만 아니라 혹 다양한 지식의 형식에 입문하였더라도 그 지식의 형식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깊이 배워야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 또한 불분명하며, 지식의 형식들 간에 유기적 통합성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연 합리적인 지식이 정말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식의 형식으로서의 입문'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한다는 교육이론의 근본 가능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허스트는 이러한 비판들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전기교육이론을 수정하여 '사회적 실체로의 입문(initiation into social practice)'을 제시했다. 허스트는 전기교육이론이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한 데서 비롯되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교육의 실천적 측면과 인간의 삶을 연결시켰다. 허스트에 따르면, 교육은 "사회적 전통으로 구축되고 발달되어 온 행위의 양식, 즉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 가령, 모든 지식, 태도, 덕, 감정, 기술, 성향을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실체의 복합체로의 입문(Hirst, 1993: 195)"이다. 교육은 개인이 사회의 다양한 실제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각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한편 화이트(J.P.White)는 피터스와 허스트의 전기 자유교육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서 '잘삶(Well-being)을 위한 교육'을 제시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교육은 지식과 이해를 통한 합리적 마음의 계발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욕구와 자율성,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어야 하고, 세속 사회에서의 잘삶이란 이론적 활동만이 아닌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이 가진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White, 1990; White, 2011/이지현, 김희봉 역, 2014). 이에 따르면 교육은 개인의 욕구와 특성, 문화에 따른 상대적 가치를 가르치고 만족시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허스트의 '사회적 실체로의 입문'과 화이트의 '잘삶을 위한 교육'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대중적이고 세속적인 비판을 수용하여 방어적으로 대응할 뿐, 여전히 인간의 존재적, 본성적 특성과 자유의 의미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피터스의 '지식의

형식에의 입문'과 함께 허스트와 화이트의 대안적 이론들이 여전히 인간의 존재론적 기반에 대한 논의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존재와 종교적 본성에 대한 논의 없이 인간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유교육의 핵심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성이나 신체 등 인간의 어떠한 측면만이 아닌 전인적인 해방을 의미한다면, '인간 존재'의 탐구 및 해명과 더불어 '교육의 형이상학적-종교적인 측면'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영국의 뉴먼(J.H.Newman, 1801- 1890)은 교육자이자 신학자로서, 일생동안 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정립했다. 그는 자유교육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인간의 존재적 기반인 종교적 특성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중요성을 드러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통적인 희랍의 자유교육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뉴먼(J.H.Newman)의 기독교적 자유교육론을 탐색함으로써, 현대 자유교육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뉴먼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인간 존재의 종교적 특성과 전인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뉴먼의 인식론적 관점으로부터 인간의 유기적-통합적 인식과 더불어 뉴먼이 강조한 '총체적 지식'과 '신학'을 검토한다. 셋째로, 뉴먼의 기독교적 자유교육론의 교육적 의의와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기독교적 자유교육론이 현대 자유교육론의 어떠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한다.

II. 뉴먼의 존재론적 관점

1. 인간존재의 종교적 본성

뉴먼은 인간 존재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을 논의한다. 그는 자유교육의 실패가 올바른 인간 이해의 부재와 결여에서 비롯됨을 지적하며, 당시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이 철저히 배제했던 인간의 종교적 특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요컨대, 인간을 보는 관점을 크게 합리적-과학적 인간관과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으로 구분할 때, 뉴먼은 교육이 결코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촉구한 것이다.

뉴먼이 보기에 인간은 경험, 감각 등에 근거하는 물리적인 부분을 가지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지성, 영혼, 진리, 신성한 절대자 또는 궁극적 실재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전인격적 존재이다. 특히 뉴먼에게 있어 인간의 '진리를 향한 갈망'은 인간의 종교적 본성을 드러내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였다.¹⁾ 뉴먼은 특정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종교적 존재'라는

사실을 단언했고, 그의 대표 저서 『대학의 이념』에서 “교육은 종교적 원리(기독교적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²⁾는 사상을 밝힘으로써 종교적 차원의 교육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이 창조한 우주의 일부인 인간은 진리에 대한 타고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마음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본능적으로 갈망한다. 이러한 열망은 점차적으로 인간의 지성에 나타나서, 진리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³⁾

뉴먼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진리를 갈망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고, 나아가 우유적이고 가변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소실되지 않는 가치, 곧 ‘진리’를 향한 사랑으로 끝없이 궁극적인 실재를 원하고 찾는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의지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며 종교에 헌신하는 의지적 존재로서 본성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을 ‘진리를 갈망하는 종교적 존재’로서 결론지은 뉴먼의 존재론적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 뉴먼이 자신의 교육사상에서 기독교적 원리와 신학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인간에 대한 그의 존재론적 접근이 성경에 기초함을 알 수 있으며, ‘기독교적’이라 함은 ‘성경’에 근거함을 뜻하기 때문이다.⁴⁾ 기독교적 인간 이해의 기초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뉴먼이 강조한 인간의 핵심 요소는 ‘양심(Conscience)’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깊고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존재의 ‘독특성’을 가진다. 이 독특성에는 ‘종교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이 종교적 차원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된 인간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은 인간의 ‘인간 됨’에 있어서 본질적이거나 필수 구성적인 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1)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과 진리에 대한 갈망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와 이념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인간의 종교적 본성을 증명했다. 현대에도 인간은 무언가를 향한 욕구와 갈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간다.

2) J. Arthur and G. Nicholls(2007), John Henry Newman, London: Bloomsbury, p62.

3) J. Arthur and G. Nicholls, 앞의 글, p48.

4) 뉴먼은 생의 초기에 영국 성공회의 전통을 고수했지만 생의 후기(45세)에는 카톨릭으로 개종해 추기경이 된다. 뉴먼은 기독교와 카톨릭의 통합을 시도하고 결국 실패했으나, 그의 교육사상에서 종교적 이념의 뿌리는 단연 ‘기독교적’이었으며, 따라서 뉴먼의 교육사상에서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식론적 접근은 ‘성경’에 기초한다.

됨이란 ‘인간 본질의 존재론적 불가능성’에 속한다(조성국, 2000).

그렇다면 인간은 그 존재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만이 자기이해가 가능하다. 즉,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존재론적 설명이 불가하며, 이는 인간이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그로부터 비롯된 진리를 향한 갈망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이탈리아의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신학적 사변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접합시켜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한 인물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존재를 ‘신으로부터의 발원’과 ‘신으로의 귀환’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교육의 본령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즉,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최대한 실현하며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퀴나스가 말하는 ‘자기완성’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아 가지게 된 자신의 고유한 형상을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고양시킨 상태, 곧 인간 발달의 최종적인 모습을 의미한다(최은순, 2013). 이로 볼 때, 뉴먼은 아퀴나스가 말한 인간의 본성 실현과 같은 맥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전인적으로 교육되어 자신의 본성과 가치를 삶에 실현하는 상태를 교육의 목적인 ‘인간의 형성(The formation of the human person)’으로 보았던 것 같다.

뉴먼에게 있어서 종교적(기독교적) 차원의 교육은 단지 인간의 정신 형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형성에 대한 적합한 과정이다.⁵⁾

즉, 뉴먼은 교육에서 인간의 종교적 측면이 배제될 수 없다는 주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핵심인 종교성을 다루는 종교적 차원의 교육이야말로 ‘인간 전체의 형성’에 대한 적합한 과정임을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뉴먼의 교육사상의 핵심 개념인 ‘총체적 지식’과 ‘신학’은, 인간에 대한 파편적 이론들과 찢어진 개념들로 빚어진 교육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교육하기 위한 종교적 차원의 교육의 대안인 것이다.

다음으로, 뉴먼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물질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본성에 내재된 ‘양심’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가시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실재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총체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다. 뉴먼에

5) J. Arthur and G. Nicholls, 앞의 글, p61.

게 있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의 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게 주어진 ‘일반은총’인 것이다.⁶⁾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롬1:19).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1:20).

인간은 ‘일반은총’으로 주어진 자연과 양심을 통해 보이지 않는 초물질적인 세계, 곧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심의 신적 기원이 인간 본성에 내재된 종교성을 드러내고, 나아가 인간존재에 대한 궁극적 진리가 신적 계시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뉴먼은 ‘양심’의 개념을 통해 교육의 도덕적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image of Christ)’으로 자라게 하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존재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한 사명이라는 것과 이를 위해 인간본성의 핵심인 종교성을 다루지 않는 교육의 심각한 오류를 드러낸다.

인간에 대한 뉴먼의 존재론적 관점은 인간존재에 대한 통합적이고 독자적인 이해를 통해, 교육에 있어 인간의 종교적 본성의 중요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유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존재에 대한 종교적 차원의 이해는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인간의 특성들을 밝혀 드러냄으로써 정서적, 의지적, 도덕적, 영적 측면들을 포괄하여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서 바라보게 하는 발판이 된다.

2.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

뉴먼의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는 단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 개념으로부터 나온다. ‘전인성’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한 인격체를 형성하고, 어느 한 특정요소에 의해 형성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전 인격체를 의미한다. 요컨대, 뉴먼에게 있어 인간은 물질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서 경험과 감각의 주체인 몸 뿐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영혼 등을 포함한 복합적이고도 단일한 전인적 인격체인 것이다.

6) 개신교는 원죄로 인한 전적 타락이후에 양심의 왜곡과 불완전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뉴먼은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대부분의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양심을 통해 죄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 양심의 위치를 다르게 본다. 이런 면에서 뉴먼은 아퀴나스를 대표하는 토미즘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는 전 인격체의 통합, 곧 인간의 전 인격적 요소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 모두가 조화롭게 통합된 관계적 ‘살롬(평화)’을 뜻한다(서영준, 2012). 전인적 존재인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과 피조세계와 이웃에게 평화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전인적 인간의 삶은 뉴먼이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한 ‘전인적 인간의 형성’의 모본이다. 뉴먼은 지적인 측면과 더불어 인간의 전체 측면을 발달시키고 형성함으로써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지성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뉴먼에 따르면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은 아마도 두 가지 이상의 목적, 즉 지성의 형성이라는 직접적인 목적과 인격의 형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

뉴먼에게 있어서 종교적(기독교적)차원의 교육은 단지 인간의 정신 형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형성에 대한 적합한 과정이다.⁸⁾

위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뉴먼은 대학의 이념을 설명하는 가운데 대학의 목적은 ‘지성의 계발’이지만, 교육 자체의 목적은 ‘인간 전체의 형성’에 있음을 밝힌다. 뉴먼은 인간의 유기적인 지성을 계발하는 일을 거듭 강조하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 계발된 지성을 포함해 다른 모든 측면이 통합되어 균형감을 유지하는 전인적 인간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뉴먼이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본다는 사실은 그가 교육에서 신학의 지위 회복을 절실하게 요청했다는 사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서 뉴먼이 말하는 기독교 신학은 각 지식을 통합하는 역할뿐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적 요소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학문으로 비춰진다. 교육에서 신학의 지위 회복을 요청한 뉴먼의 주장은, 전인 형성을 위해 인간의 어떠한 측면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로부터, 특별히 교육이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인 종교성과 전인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요컨대, 뉴먼의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는 인간 전체측면의 발달을 포괄한 ‘전인적 해방’과 ‘자유’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인간을 총체적,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뉴먼의 존재론적 관점은 현대 자유교육론과 우리 교육 현실에 적잖은 함의를 준다.

7) J. Arthur and G. Nicholls, 앞의 글, p63.

8) J. Arthur and G. Nicholls, 앞의 글, p61.

Ⅲ. 뉴먼의 인식론적 관점

1. 지식의 통합적·유기적 인식

모든 지식은 하나의 총체를 이룬다(Newman, 1852: 38).

지식의 모든 갈래는 고립되거나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총체(a whole) 또는 하나의 체제(system))를 형성하고 있다.(Newman, 1852: 194~195).

뉴먼에 따르면, 지식은 사물에 대한 견해이며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구성한다. 따라서 지식은 단편적으로 쪼갤 수도 분리될 수도 없으며, 하나의 전체로서 존재한다. 뉴먼은 이것을 ‘지식의 원(the circle of knowledge)⁹⁾’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포괄성과 시각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하게 요구되는지에 대해 ‘백과사전(encyclopaedia)’을 제안하여 설명한다.¹⁰⁾ 지식을 압축, 정리해서 각 사항을 규칙에 맞추어 배열하여 만든 ‘지식의 총체물’이라는 ‘encyclopaedia’의 개념은 뉴먼이 강조한 지식의 통합성과 유기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나아가, 지식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특성은 인간의 ‘인식’의 특성과 연결된다. 인간은 인식하는 존재로서 인식한 지식의 내용을 배열하는 주체이다. 여기서 인간은 각각의 지식과 정보를 파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로서 인식하고 구성하며, 그렇게 통합된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경험들이 다시 인식되고 통합되어 자신의 고유한 시각을 형성한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 의견을 만들고 판단을 내리는 결정적인 방법은 삼단논법이나 추론적 증거물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면에 형성된 개인의 고유한 시각이다. 뉴먼은 인간이 통합적-유기적 인식을 통해 형성한 고유한 시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대상을 보완하고 판단하는 일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빛으로, 스스로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기술하였다.¹¹⁾

그런데 뉴먼에 따르면, 인간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인식은 신중하게 길러지고 교육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획득한 지식을 현실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양성과 상호연관성을 인식하여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기 위해 ‘지성의 계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9) J. Arthur and G. Nicholls, 앞의 글, p67.

10) 같은 글.

11) 같은 글.

이것을 위해, 뉴먼의 교육사상의 핵심 개념인 ‘총체적 지식’이 요구된다.

2. 총체적 지식과 신학

신학은 총체적 지식의 일부이면서도 동시에 조건이다(Newman, 1852: 52~53).

만약 기독교적인 믿음이 진리라 할 수 있다면,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 대학은 총체적인 지식을 가르칠 수 없으며, 대학 그 자체가 기독교 외부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Newman, 1852: 194~195).

뉴먼의 총체적 지식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총체를 뜻한다. 이는 모든 지식의 단순한 산술적 합이 아닌 유기적인 통합을 의미한다. 교육은 총체적 지식을 추구하여, 지식을 통합시키는 지성(또는 총체적 마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뉴먼의 입장이다. “신학은 총체적 지식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조건이다.”라는 뉴먼의 명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총체적 지식에 신학이 포함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신학을 통해서 총체적 지식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신학은 모든 지식의 유기적 통합을 위한 토대인 셈이다.

이 논의에서는 총체적 지식의 조건이 되는 신학의 몇 가지 큰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학의 ‘진리성’이다. 신학은 ‘신’이라는 존재론적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들은 각자의 고유한 개념과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모든 학문은 진리를 추구한다. 신학이 진리를 기반하며 추구한다는 점과 모든 지식이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각 학문이 추구하는 지식은 그 형식과 범위를 막론하고 본질상 신학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신학은 모든 학문이 가지고 있는 기반인 동시에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서 진리에 대한 확실성을 바탕으로 각 학문들 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¹²⁾

둘째, 신학의 ‘무한성’이다. 뉴먼은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는 것이라며 신학의 영속성을 강조한다.¹³⁾ 지식의 탐구에 있어서 진리를 향한 가능성은 닫혀 있거나 제한되지 않고 무한해야 한다. 신학은 그 무한성 속에 각 학문들을 포괄하여 담아낼 수 있고, 무한성 안에서 다양한 학문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다. 모든 학문이 삼고 있는

12) 유재봉, 정철민(2010), 대학 이념으로서의 자유교육: 뉴먼(Newman)의 ‘총체적 지식’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철학학회, 교육철학 49집.

13) 손서정, 앞의 글, p52.

대상과 학문 그 자체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신학의 영역 내에 존재하게 되며, 신학은 신의 무한한 영역 안에서 각 학문들로 하여금 상호 관계를 맺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뉴먼은 지식들을 포괄하면서도 연결시킬 수 있는 신학을 주장한 것이다.

셋째, 신학은 하나님-인간-세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는 모든 궁극적 존재에 대한 지식으로서 인간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피조물인 전인적 인간에 대한 지식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식론적-형이상학적 접근과 성찰을 제공해준다. 특히 학문적 영역에서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나란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관시킨다. 모든 학문은 피조물의 특정 영역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반면, 신학은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주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며, 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을 도출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k)는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Regina scientiarum)”이라고 주장했다. 신학의 이러한 특성은 분리된 각 학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바라보게 함으로써, 단절된 지식들을 하나의 총체로서 통찰하고 형성하게 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행위 모두가 이 세상 양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건전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만 통전적일 수 있다.¹⁴⁾

반 브루멜른의 말에서, 온전한 의미의 총체적 지식은 전인적 발달을 이룬 인간의 ‘통전적인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식이 ‘성경’, 곧 ‘계시’에 기초할 것을 밝히고 있다. 신학이 ‘계시’를 토대로 한 학문이라는 분명한 사실로부터 뉴먼은 교육에서 신학의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뉴먼의 논의의 핵심개념인 ‘총체적 지식’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전인적 인간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총체적 지식-신학-전인형성’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와 직결된다.

IV. 교육적 함의

14) 조성국,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학교교육”, 고신대학교부성 기독교교육 연구소, 기독교교육연구시리즈 20, 2003.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유교육은 인간의 지적 측면이나 욕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으나, 인간의 근원적 본성에서 요구되는 종교적 측면을 배제하고 있었다는 것이 뉴먼의 사상으로부터 확인된다.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교육은 지금껏 인간을 한 부분이나 인격적 특성 또는 사회와 문화 등의 외적인 요소들로 해명하려 했으나, 뉴먼에게는 인간의 존재적 본성으로부터 자유교육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뉴먼의 교육사상은 현대 자유교육론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극복하게 해준다.

첫째로, 교육에 있어 인간의 종교적 본성과 전인성을 확인시켜준다. 교육이 인간존재에 대한 앎을 기반할 때, 보다 온전한 의미의 자유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뉴먼은 교육이 인간의 종교적 본성을 간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교적 차원의 교육을 통해 인간의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종교적 본성이 인간존재 자체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뉴먼의 이러한 존재론적 관점은 교육에서의 종교적 차원의 중요성과 전인적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간과한 현대 자유교육론에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신학의 진리성과 무한성 속에서, 그리고 신학의 하나님-인간-세계에 대한 유기적 지식 속에서 모든 지식은 통합되고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는 종교과목 또는 신학 교육이 요청되는데, 이는 결코 단순히 특정 사상이나 교리를 강요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종교과목은 인간 존재자의 삶, 행복, 죽음, 가치와 진리 등의 의미를 마주하여 받아들이게 하고, 그러한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가지고 자기 존재와 의미를 묵상하게 함으로써 존재와 실재에 대한 관조의 중요성을 밝혀준다. 이러한 관조로부터 결코 지식전달로 가르쳐질 수 없는 행복, 정의, 사랑, 용서, 용기, 평화 등과 같은 인간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탐색하고 소유하게 된다.

특히 계시를 기초로 한 신학은 인류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해명해내지 못한 내면적인 인간 자신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나아가 신학은 인간을 하나님과 세상과 연결된 존재로서, 그리고 전인적인 존재로서, 통전적인 삶의 방식을 갖추게 한다. 그리하여 지식과 삶이 온전히 연결된 전인적 인간의 모습을 비춰준다. 이는 이론적 교육 아니면 실용적 교육으로 분리된 현대자유교육론의 고질적인 이분법적 문제에서 벗어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다. 뿐만 아니라 현대교육의 부분적 인간이해와 파편적인 지식전달, 도구적 교육으로 인한 비도덕적이고 비참한 사회현실에 진정한 의미의 지식과 연결된 전인적 인간의 삶을 위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육을 통해 자유를 얻은 인간의 모습을 ‘문화적 사명을 가진 인간’으로 제안한다.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 온전한 의미의 총체적 지식을 얻어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 곧 ‘문화적 사명으로 인간을 이끄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문화 체계’를 의미한다. 뉴먼은 일차적으로 지식을 통합하는 지성의 계발을 추구했지만, 궁극적으로 목적 삼은 것은 계발된 지성을 삶으로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지성의 계발에 더해 인간의 전인적인 모든 측면의 발달이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¹⁵⁾

여기에 자유를 누리는 인간의 참된 모습이 드러난다. 총체적 지식은 삶에서의 헌신과 섬김과 통합된다. 따라서 삶의 양식을 갖추거나, 삶의 양식으로 입문하는 인간이 아닌, ‘삶의 양식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이 기독교적 자유교육론의 목표다. 자유를 위한 교육은 곧 총체적 지식의 실천과 적용으로써 세상과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을 위한 교육인 것이다.

반 브루멜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행위 모두가 이 세상 양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건전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만 통전적일 수 있다.”¹⁶⁾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지식이 형성되면, 그 지식의 형식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삶의 양식을 갖추게 한다. 그리고 그 삶의 양식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고 발휘된다. 피조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창조세계를 이해할 때, 그리고 타락으로 인한 창조세계의 파괴와 심각성을 분별할 때, 인간은 문화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15)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2001.

16) 조성국, 앞의 글.

수 있으며 그것이 진정 교육을 통해 자유를 얻은 전인적 인간의 삶이다.

결론

이 논의에서는 뉴먼의 교육사상의 존재론적·인식론적 관점에서, 현대 자유교육론이 간과하고 있던 종교적 본성 배제의 한계와 더불어 인간의 ‘자유’와 ‘전인형성’의 긴밀한 관계를 밝혔다. 특히 자유교육이 그토록 원하는 ‘총체적 세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뉴먼이 제시한 ‘신학’은 현대 자유교육에 새로운 대안을 조명해준다. 나아가 뉴먼의 인간존재에 대한 통찰로부터, 인간이 본성적으로 진리와 자유를 갈망한다는 사실 때문에 교육은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에게 자유교육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넘어 ‘기독교적 자유교육’을 요청받는다.

‘초복잡성(supercomplexity)’으로 불리는 오늘날 교육을 향한 국가와 사회의 요구는 실제적 능력 측면으로 커져가면서 자유교육이념의 뿌리와 근본적 가치를 거세게 위협했으나, 기독교적 자유교육은 배제되었던 인간의 존재적 본성과 신학의 회복을 통해 신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유기적 이해를 제안함으로써 자유교육에 ‘지식-인간-사회’의 도식을 조명해준다.

그러나 이 논의는 더 나아가 신학과 각 학문의 구체적 관련성을 치밀하게 드러내야 할 한계를 안고 있다. 뉴먼의 존재론적 관점과 인식론적 관점을 검토함으로써 현대자유교육론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보완했으나, 기독교적 자유교육론의 정당성과 실천적 모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체계화하는 몫이 남아있는 것이다. 실지로 신학과 총체적 지식의 관련성에 대한 뉴먼의 설명 또한 모호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각 학문들에 신학이 미치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이와 더불어, 한 편으로 현대자유교육론이 조명해준 현시대의 세속적 사회에서의 인간 욕구 문제, 현실적인 삶의 문제 등에 대하여 그저 기독교적 가치를 강조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그에 대한 기독교적 대답을 준비함으로써 삶과 유리된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삶과 긴밀하게 연결된 온전한 의미의 ‘기독교적 자유교육론’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논의를 마무리하며, 기독교적 자유교육론이 한국의 교육에 주는 중대한 의미가 조명된다. 뉴먼의 교육론을 통해 교육자들은 왜 지금껏 교육이 단절되고 파편화된 지식전달과 균형 잃은 인간을 만들어냈는지, 왜 인성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교육의 수준은 높아졌으나 사회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하는지, 교육이 간과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인적 인간의 양성’을 위해 ‘신학’을 제시한

뉴먼의 주장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뉴먼이 제시한 자유교육의 원형은 성경에 있다.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면, 현대 자유교육론은 ‘지성의 함양’ 또는 ‘욕구 만족을 통한 행복한 삶’을 ‘진리’로 본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인간은 끝없이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고, 여기서 조차 뉴먼이 말한 인간의 종교성은 확실히 드러났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진리를 찾는 인간의 존재적 본성과 활동이 자유교육의 가능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신학에서 ‘진리’는 ‘예수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자유교육은 궁극적으로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전인적 해방이 온전한 의미의 자유교육임을 가리키고 있다. 총체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예수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하다면, 그리고 ‘자유’가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으로부터 가능하다면, 이제 자유교육은 다른 곳이 아닌 성경에서 그 사명과 실천을 구체화해 나갈 때이다.

<참고문헌>

- 김인(2015), “자유교육의 이념 - 그 쇠퇴의 역사”, 한국도덕교육학회.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신영순·이민경·이현민 옮김, *살림을 위한 교육*.
목영해·양진건·이항재·한규원, *교육의 역사와 철학*, 교육과학사.
서영준(2012), “성경적 인간이해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 - 인간: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인간연구(23).
성경전서 개역개정판(2001), 대한성서공회.
손서정(2014), “존 헨리 뉴먼의 교육 사상: 대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송병순(2005), 지구윤리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한국종교교육학회.
스테판 E.쿠이퍼스·크리스토퍼 마틴, 이병승 옮김, *피터스의 교육사상*, 서광사.
유재봉(2004), 합리주의적 자유교육론의 비판적 논의, 기독교학문연구회.

- 유재봉, 정철민(2010), 대학 이념으로서의 자유교육: 뉴먼(Newman)의 ‘총체적 지식’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철학학회, 교육철학 49집.
- 임창호(2011), 『기독교교육 목적의 하나로서 그리스도인의 인간성 문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26.
- 정연재(2018), “자유교육과 직업교육의 이분법을 넘어서-균형 잡힌 교육을 위한 하나의 시도”, 한국교양교육학회.
- 조성국(2000), 기독교 인간학: 하나님의 형상인 전인적 인간,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 조성국(2003),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교교육”, 고신대학교부설기독교교육연구소, 기독교교육연구시리즈20.
- 조영하(2015), “21세기 대학의 자유교육, 그 정체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교육학회.
- 최은순(2013),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론에 비추어 본 교육의 목적”, 교육철학연구.
- 헤르만 바빙크(2011), 박태현, 개혁교의학, 부흥과개혁사.
- Hirst, P.H.(1965), Liberal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 in: R. D. Archambault(ed.) Philosophical Analysis and Educati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Newman, J. H.(1852), The Idea of a University(Ed. M. J. Svalgic),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J. Arthur and G. Nicholls(2007), John Henry Newman, London: Bloomsbury.